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1호 [루게 제2637호]

주제 110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음력 2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승리의 기치를 너들이 들었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과제는 전당이 이민주선,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승고한 정치리념 - 이민주선

이민주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지론이었고 좌우명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고수하시고 펼쳐가신 정치리념, 정치철학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주선의 승고한 뜻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국가마다 자기의 정치리념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참다운 리념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승고한 정치리념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민을 위하여 만전을 지고 협한 가시밭도 헤쳐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별사복부의 의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무수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았다.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감정에 겨워하는 인민들의 모습

국의 투쟁사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이민주선과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려면 누구나 삶과 투쟁의 진리로 간직해온 뜻깊은 글자들이 새로운 전진과 더 큰 승리로로 천만대중을 힘차게 부르고있다.

영원한 백승의 무기 - 일심단결

지구상에는 령도대국, 인구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정치사상강국은 오직 공화국뿐이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라고 밝혀주시었다.

가장 공고한 단결을 낳는 힘은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지난해 8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콘볼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어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시기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이민주선을 승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기적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금은 태풍과 콘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던 흔적은

과 용기를 분출시키는 전진의 메아리, 장쾌한 승리의 메아리이다.

절세위인의 마음속에

그로록 불덩이처럼 간직된 인민, 그 인민을 위해 그처럼 고심하고 분투하시며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 따르고 받드는 것이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에서 절세위인에 대한 호모와 그리움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웨치던 열병대오들과 각종 군중들.

정녕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속도였다.

경도자는 인민을 믿고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인민은 경도자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이것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려이 솟아져나오고 세상사람들을 놀라우게 하는 기적적사변들이 다채 단으로 일어났다.

변영의 보검 - 자력갱생

자력갱생은 공화국인민특유의 투쟁정신이고 창조본태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역사적행로에서 언제나 기적과 변영의 보검, 만능의 열쇠로 되어온 자력갱생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

지금도 사람들은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에 자력의 힘으로 만든 지하전동차 1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을 안고있다.

절세위인의 마음속에 그로록 불덩이처럼 간직된 인민, 그 인민을 위해 그처럼 고심하고 분투하시며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 따르고 받드는 것이다.

정녕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속도였다.

경도자는 인민을 믿고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인민은 경도자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이것이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되고있다.

모두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이민주선 일심단결 자력갱생



모두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온 나라에 꽃피는 여성들의 행복넘친 웃음

3.8국제부녀절 111회를 맞이한 온 나라에 여성들의 행복넘친 웃음이 더 활짝 꽃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피어나 사회주의대가정에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 주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존경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축하의 꽃물결이 되어 방방곡곡에 끓어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각지에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화가 울려퍼졌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드리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 야외무대들에서 다채로운 축하공연들이 진행되었다.

3.8 국제부녀절을 기념

3.8국제부녀절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열렸다.

관현악 《너성은 꽃이라네》로 시작된 무대에는 관현악 《그네워는 처녀》, 남성독창 《사랑하시라》,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철명아래 사과바다》를 비롯한 중무들이 울렸다.

동평양극장에서는 3.8국제부녀절기념 만수대예술단

중앙예술선전대, 직충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철도에예술선전대,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 등이 당창건기념탑광장, 평양역광장, 통일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야외공연무대를 펼치고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평양극장 명곡, 명장면류음공연이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이 있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

조국소식

26만산대발파진행

순천석회석광산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는 순천석회석광산에서 10월 26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더 높은 광물중산성률과 화답해나설 열의 안고 이곳로동계급이 대발파를 성공시킴으로써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 주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광산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화산석정지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은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선진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현존생산도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대발파준비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자체보장 등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세멘트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기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노동계급의 로동자들은 암질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발파회수를 늘였다.

이들은 암석굴기와 단면에 맞는 천공깊이를 확정하고 발파순환당 효률을 최대한 높여 수백m에 달하는 갱도굴진을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발파구멍들, 장막 등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대발파의 폭음을 울린 총천한 기세로 순천석회석광산의 로동계급은 운명작업에 령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농업부문에

산성토양과 랭습지 개량, 흠갈이 진행

공화국의 농업부문에에서 저수확지에서의 중산을 위해 영농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산성토양과 랭습지가 개량되고 많은 량의 흠갈이가 진행되었다.

남포시에서 필지별, 포전별

에 따르는 토양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광재비료, 린회토, 소석회뿌려주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모매기가 많은 포전들에 흠갈이를 진행하였다.

개성시에서 산성토양과 랭습지에서의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소석회생산기지를 자체로

꾸러놓고 논과 밭에 뿌려주고있으며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이 쪽쪽 빠질수 있게 하고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의 농업근로자들도 저수확지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령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자애로운 품에 안겨사는 인민의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물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자신이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해본다 하며 나름대로 자기가 누리고있는 행복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하다면 이 땅의 인민들이 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누가 말하는 화려한 변신도 아니며 번쩍거리며 부귀영화도 아니다. 이에 대해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의 제일가는 행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사는 것이라고.

돌이켜보면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파눈물의 그 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살붙이와도 같은 온 나라 인민들을 한 품에 안아 일으켜주시며 그 리도 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의 사색은 인민을 위한 사색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걸음도 언제나 인민을 위한 걸음으로 시작되고 이어 지고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이께서 견고결실한 길 그 열 마이며 사색을 사색을 이으시며 지도해주시는 족자의 중요회의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가서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분배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하여야 한다. ... 이것이 인민이 불행에 당하면 제일로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협한가시던 불행도 서슴없이 헤쳐가시고 자신의 천만고생으로 인민의 행복을 안아올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인민의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이다. 이렇듯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직 어려운 것이 많고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인민들은 그 품에서 사는 무한한 행복감을 심장으로 토로하고있는 것이다.

땅 그 어디에나 닿아있다. 하기에 인민은 그 손길을 꼭 잡고 생의 밑걸음 가고있고 그렇듯 넓고 따뜻한 품을 떠난다면 삶의 전부를 잃게 되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령도자를 그리고 그 품에 저저마다 안겨드는 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무수히 찍혀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 발자욱에 자신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따라세우고 그이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인민의 소박한 심정이 노래되어 울리는 땅이다. 이 땅의 인민들이 제일 애하게 기다리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다. 아침에 깨어난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신문부터 찾아 읽어보고 원수님의 현지도도 소식과 지도하시는데 특별한 회의소식이 전해질 때면 누구나 울렁이는 마음으로 보도를 경청하고 텔레비전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신문과 텔레비전화면에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짙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들어와 편이 어진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소식을 전해 듣고 이 땅 어딜 가나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들을수 있는 심중의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진행된 회의들에서 시중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군들이 어떤 각오와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었다.

인민, 인류역사에 인민이라는 부름이 생겨나 오랜 세월이 흘러왔다. 하지만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처럼 그렇듯 애타고 위대한 부름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레는 일찍이 없었다.

위대한 인민! 이제는 이 땅 누구에게나 락 귀에 익은 정든 이름으로 새겨진 그 부름앞에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어이하어 그렇듯 승응해지는 것인가.

오로지 인민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이께서 견고결실한 길 그 열 마이며 사색을 이으시며 지도해주시는 족자의 중요회의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경직속에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본다. 그것은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련이 연결된 자연의 광란때문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결의로, 인민들의 가장 가까이로 더더욱 다가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숨결을 더 깊이 느끼었고 그이의 발걸음소리를 들었기때문이다.

그를 떠나 못살아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의 태양이고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언제나 운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희망과 심신을 안겨

주며 포근히 안아 삶을 빛내 주고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 그 품에선 멀고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으며 보살펴 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려깊은 시선은 이

그 누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저 멀리 아득한 창공을 새처럼 날고싶아 원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싶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진행된 회의들에서 시중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군들이 어떤 각오와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결심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고 우리는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게 된다. 이것이 어머니와 고락을 같이하며 혁명의 거나면 길을 헤쳐온 인민이 자기들의 가슴속마다 억연드눌지 않게 깊이 새기고새신념과 의지이다. 오늘도 래일도 이 땅의 인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세상에 선단한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열백번 변할다 해도 오직 그 품에만 안기고 그 령도만 따르리만 백명 일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민현신의 강행군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여러날에 걸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소식이 련일 사람들을 격동시키었다. 그렇게 이어진 3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순부터 4일

간에 걸쳐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조직하고 몸소 개강사를 하시고 결론과 폐강사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회와 전원회의, 강습회를 품을 들어 준비하시고 전 과정을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소식을 접하면서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을 삼키었다. 당과 국가, 인민을 이처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그이께서 어느 한시인들 편히 쉬시였겠는가.

말그대로 그이의 정력적인 혁명령도의 낮과 밤, 달과 달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으로 이어져왔다.

하기에 회의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세계인들도 대서특필로 보도하였다.

《개회사와 보고, 결론, 폐회사 등 《강행군연설》을 통해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또다시 《실무형지도자》의 모습을 파시, 《이례적으로 당 제8차대회이후 한달만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3일간에 걸친 장문의 보고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과업을 제기, 《력사상 첫 강습회의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한 김정은총비서 개강사와 결론, 폐강사로 시, 군당일군들의 사업방향 제시》... 세계가 격찬한 《강행군연설》, 《강행군연설》! 오직 하나 인민들에게 한시바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사색과 실험, 사랑과 헌신의 《강행군연설》, 《강행군연설》을 이어 오신것 아니겠는가.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인민을 위해 떠나는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인민의 령도자가 아니시고는 도저히 이어갈수 없는 사색과 헌신의 강행군이다.

강행군, 공화국인민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이다.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심야강행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령도자께서 앞장서 걸으시는 행복과 번영으로 향한 진군 길이다.

세해전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레전에 없는 극도의 고온현상으로 하여 밤에도 견디기 어려웠던 2018년의 삼복철,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으로 미역을 감고 숨이 막히어 그늘에 앉아서도 숨을 헐떡이던 날날에 한 나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폭열을 헤치

시며 현지도도강행군길에 계시었다.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도,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에도 그리고 또다시 며칠사이 강원도와 평안남도, 함경북도, 량강도에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이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수십개에 달하였다.

무엇이 그리로 하여금 삼복의 폭열도 이겨내시게 하였었는가. 인민에 대한 사랑이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이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었다는 고결한 인생관, 자신을 인민의 참된 총부,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의지였다.

이런 초인간적인 정열로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시며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 꽃피워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사랑의 진가는 고난과 시련앞에서 더 정확히 평가된다고 한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련이 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수많은 지역들이 자연재해를 입었다. 그때 제일먼저 피해지역을 찾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직접 잡으시고 협한 진장길에 앞장서서 헤치시었고 언제 상사에게 무너져내릴지 모르고 물먹은 철길로반들이 어느 시각에 주저앉을지 모

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길을 달려 북부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었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린다고, 집을 잃고 한지 속에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현지도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의 령도에서 재해지역들에 회한한 신경마음들이 솟아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꽃피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를 끝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해에도 별개 발달재능적으로 회의들을 지도하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고계시나 인민이 격정에 목이 메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눈은 연단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총부답게 위민현신의 길에 걸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해 이렇게 엄숙히 맹약하신다. 그리고 그 맹약을 실천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레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강행군의 맨 앞장에 서서어 환한진군의 보복을 내짚으신다.

손히 아침인사에는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이 담긴다.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는 아침이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 아침보도 들었습니까?》, 《아침에 새 소식을 들었습니까?》라는 말들이 정겹게 오가고있다.

매일 매 시각 넘쳐나는 기적과 전변의 소식들때문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소식을 나누고싶어서이다.

얼마전 아침보도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지도하신 소식이 제일먼저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당회의와 모임은 올해에만 벌써 여러차례나 된다. 1월의 당대회와 2월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이어 3월의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지난해 악성전염병으로부

군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는 공화국의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향상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강습회에서는 현시기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인 시, 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되었다.

공화국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지역적거점으로서 매우 중시되어왔다. 행정구역단위들인 도, 시, 군, 리가운데서 군을 농촌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으로 규정하게 된것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자연경제조건에 있어서나 그리고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수단들을 갖추고있는 점에 있어서나 농촌사업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서 가장 알맞추어졌기때문이다.

이 모던것을 깊이 통찰하고 군을 강화해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당시 공화국의 농촌진지는 군을 중심으로 하여

는 력사적인 창조전선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주인민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단위로 단위로 불수 있다고 하시면서 시, 군이 앞으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공기지로 남아있게 될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당시 공화국의 군들은 평균 20~30개의 협동농장과 1만정 보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있었으며 이것은 농촌경리를 기업적으로 지도하며 현대적기술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적당한 규모였다.

뿐만아니라 군은 해당 지역안의 자연지리적조건이 류사하며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비슷함으로써 하여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이 모던것을 깊이 통찰하고 군을 강화해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당시 공화국의 농촌진지는 군을 중심으로 하여

강화되었으며 농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그 어느때보다 향상되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 군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결론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당시 공화국의 군들은 평균 20~30개의 협동농장과 1만정 보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있었으며 이것은 농촌경리를 기업적으로 지도하며 현대적기술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적당한 규모였다.

뿐만아니라 군은 해당 지역안의 자연지리적조건이 류사하며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비슷함으로써 하여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이 모던것을 깊이 통찰하고 군을 강화해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당시 공화국의 농촌진지는 군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을 강화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은 지금 새로운 진군길에 펼쳐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더 높은 투쟁열의를 불리여켜주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터 인민을 지키시기 위해, 자연재해복구를 위해 온 한 해 자신을 바치시기도 인민 생활이 얼마나 격정되었으셨는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셨으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이어 또

백두산의 붉은 노을빛으로 불타는 회의장의 연단에 오르시어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보이며 인민은 격정에 설렘었다.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에게 너그러한 생활을

다가온다고 누구나 말한다. 고난과 시련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담력과 배짱, 난관앞에 주저를 모르는 천백배의 힘과 용기는 바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보도 들었습니까?》

다시 중요회의들을 조직해주시었겠는가. 이번 강습회에서 하신 말씀마다에서 강조하신것도 인민생활, 인민의 행복에 대한 것이었다.

시, 군당책임비서들을 야전정치일군, 당중앙이 파견한 전권대표, 군의 안주인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마련해주지 못한 아픔을 더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다 휘황한 레일의 설계도를 하나하나 그려주시는 열정넘친 존안을 우리르며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심신이 넘치고 새 힘이 솟는다. 공화국인민들이다. 그의 말씀을 받아안으면 전진의 보복이 넓어지고 그이께서 하라는데로만 하면 변명의 래일이 성공 눈앞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레일의 번영으로 이어가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는 것이다.

하기에 하늘같은 그 품 떠나 못살 공화국인민은 목숨같은 맹세를 터친다.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천하를 다스리겠다.

그이를 모시고 영원히! 날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고싶고 경애하는 그이와 숨결도 보복도 함께 하고싶은 마음들이 이 아침에도 신심과 환희에 넘쳐 저저마다 물든다.

《오늘 아침보도를 들었습니까?》 본사기자 황금숙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제

류경안과종합병원

◇ 평양의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다. 그것은 걸모습부터가 눈치로 전문으로 하는 건물이라는 특징이 한눈에 안겨오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이다.

◇ 류경안과종합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인민들의 시력을 보호해주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할것을 몸소 맡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힘있는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자체보장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주제105(2016)년 10월 새로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병원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 병동 등으로 이루어진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무료로 검진 및 치료를 받고 광명을 되찾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에서의 하루 입원비가 수천US\$에 달하여 돈없는 사람들은 실명을 당해도 병을 고칠수가 없다.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여기서 눈물겹게 알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우리 고향, 우리 제품

질 좋고 다양한 천연 향료들

평양향료공장에서 향료의 품종을 확대하고 생산을 늘이고있다. 최근 여러가지 천연식물을 리용한 기능성 향수들과 조미용향료들이 더 늘어났다. 공장에서는 40여종의 식용향료와 20여종의 공업용향료 그리고 몸향수, 방안향수를 생산하고있다. 새로운 효소발효법으로 향기증강효과를 높인 과일류향료들은 식료품과 치과위생용 향료들은 식료품, 화장품, 일용품생산 단위들과 소비자들이 매우 좋아한다.

공장의 향료연구소에서는 새 품종의 질 좋은 향료들을 연구개발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현재 천연식물들에서 추출한 수십가지 정유들을 향료생산에 리용하고있다. 새로운 효소발효법으로 향기증강효과를 높인 과일류향료들은 식료품과 치과위생용 품생산에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만만한 야식을 지닌 20대 박사

지난 2월 공화국에서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적이 수여되었다.

국가학위학적수여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나라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많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었다.

그들중에는 20대 초엽의 애젊은 한 청년도 있었다. 이름은 배지성, 나이는 23살,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은 기자는 불타는 열정과 높은 실력으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배지성을 만났다. 이미 재학기간에 배지성은 비선형나노광학연구집단에

속하여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여러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물리학회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있다.

그는 대학기간에 물리학사학위를 받았고 연속교육제에 망라되어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비선형나노광학 연구를 계속 심화시켰다.

이번에 그는 《자기플라즈몬의 변조와 한방향전파》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집필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한 두뇌를 가진 그는 나라의 이름난 수재양성기지인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그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에서 희망의 나라를

향짝 펼치었다. 주제과학교육의 최고전당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이름 있는 교원, 연구사들의 지도와 방조속에 분초를 쫓으며 과학탐구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그러던 주제105(2016)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높이 받들고 세계 일류급대학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가 공부하던 물리학과에서도 창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학기술,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연구형학부건설을 지향하면서 본과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과학연구사업에 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배지성의 연구분야는 빛과 재료의 호상작용에 기초한 과학분야로서 새세대정보기술, 에베르기기술, 새재료기술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고있다.

학부와 대학적인 학과경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첨단과학연구에 달라붙었다. 새 세대의 젊은 과학자뒤에는 그를 키운 훌륭한 스승이 있는 법이다.

현재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실장으로 사업하고있으며 그의 지도교원이기도 한 임성진은 세계적수준의 논문을 수십건이나 발표하였고 세계광학협회 등에서 국제학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배지성은 《임성진실장을 비롯한 학부연구실의 방조를 받으며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분야의 전문지식들을 독파하고 연구사업에서 성공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배지성은 비선형나노광학을 발전시키면 나노과학과 광학, 재료과학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면서 박사원기간에 첨단연구성과들을 이룩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의 꿈은 조선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두뇌로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 조선을 빛내이겠다는 야심과 배짱을 지닌 20대박사 배지성, 그는 오늘도 첨단과학연구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사람들은 흔히 너인들의 수고나 헌신을 두고 이야기할 때 마음씨와 함께 손을 떠올리곤 한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집안살림을 도맡아하며 자식들을 조국앞에 훌륭히 키워 내세우는 너인들의 손을 두고 행복을 창조하고 미래를 안아키우는 보배로운 손이라 이르기도 한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있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그 손길아래서 내가 자랐고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꽃피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의 두손이 단순히 자식을 어엿하게 내세우고 한집안의 화목과 행복만을 가꾸어 보배로운 손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머칠질 나는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어머니를 축하해 줄려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섰다. 흥겨운 마음으로 방안에 들어서던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책상우에는 향기로운 꽃다발이 여러개나 놓여있었던 것이다.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하지 않은 어머니의 얘기를 듣노라니 예뻐한 감정과 함께 자연히 나의 눈길이 어머니의 손으로 갔다.

늘 봐야 언제 한번 마를 새 없는 어머니의 손, 아침저녁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주고 추울새라 더울새라 마음쓰는 따뜻한 손이었다.

하나 어머니의 두손은 단순히 음식섭취나 바느질솜씨로 재간많은 손이 아니었다. 한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의 손!

나의 어머니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녀성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관철을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기에 조국의 아름다운 레일이 더 빨리 마중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속토록 놓지 못했다. 보배로운 두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어머니처럼 나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혁신자, 참된 애국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어머니의 두손을 쓰다듬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리진홍

쑤 펴도 작아도 큰손

(아니, 벌써 누가 이렇게?) 어머니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기업을 일꾼들이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자기를 축하해주려고 먼저 왔다

했다고 말해주었다. 함께 일하는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직포공으로서 매일 계획을 150%이

상 차려주고 추울새라 더울새라 마음쓰는 따뜻한 손이었다.

하나 어머니의 두손은 단순히 음식섭취나 바느질솜씨로 재간많은 손이 아니었다.

한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의 손!

나의 어머니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녀성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관철을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기에 조국의 아름다운 레일이 더 빨리 마중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속토록 놓지 못했다. 보배로운 두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어머니처럼 나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혁신자, 참된 애국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어머니의 두손을 쓰다듬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기사속에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꾸려 학생들의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뿐 아니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면서 학습과 훈련에 열중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평양시축구학교가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훌륭히 키워 낼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2019년 5월 인터넷에 실린 한 기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5년간에 6만 3 000여명의 국내외학생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공화국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언젠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여름에 별한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 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악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 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평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고 돌아온 날 나는 나의 심정을 일기장에 이렇게 담았다.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 같으면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최상급의 야영수들에서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다. 국가의 보살핌과 혜택속에

북벌의 교육현장을 가다

명당자리, 명승지마다에 (2)

서 자란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답의 마음을 안고 성장한다. 바로 그 마음은 애국주의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것이 되었다.

후날 이런 느낌을 또다시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2019년 4월 나는 공화국에서 는 물론 남조선과 해외에 휘파람가수로 널리 알려져있는 보천보전악단의 가수였던 전혜영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지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교원으로 근무하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관람을 마치고 전혜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그에게 화려한 무대를 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있는것이 좀 서운하지 않은가고 물었다.

마흔을 켜 넘긴 얼굴이지만 아직도 북소리들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20대나 다름이 없이 맑았다. 역시 명가수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부른 《휘파람》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물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때도 잊을수 없지만 나라의 왕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오늘날은 나라가 다 아는 가수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그 싹을 찾아준 고마운 선생님이었고 그 싹을 꽃피울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국가의 혜택때문이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언덕에 보답하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들인가는 온 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들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이 솟아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이야기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가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날에도 아이들의 궁전의 불빛만은 꺼질줄 몰랐다고, 오늘도 아이들은 그 사랑, 그 은덕을 노래로 전해가고있

다고. 내가 그 노래를 들려줄수 없겠는가고 하자 그는 소조 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하고 자신이 직접 피아노반주를 했다.

단정하게 생긴 남학생의 노래소리는 마치 성악공룡경연에 나선 경연자를 방불케 했다.

... 재를 털고 학교를 먼저 세웠고 야영소와 궁전도 세워주신 대원수님 불빛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 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 얼마나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는지 내 가슴도 찌르르 울렸다.

불빛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시며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이

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석님께서 아이들에게 바치신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우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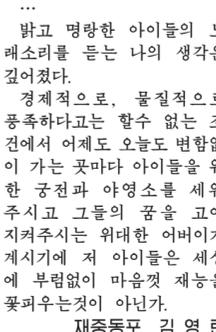
제정을 요구하는 나에게 어제날의 가수는 꽤요 요청을 받아들이며 소조 전체 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공화국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노래라고 주해를 달면서...

귀에 퍼 익은 노래였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는 할수 없는 조건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를 세워 주시고 그들의 꿈을 고이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기에 저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것이 아닌가.

재중동포 김 영 란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의 리소왕릉 - 동명왕릉

고구려는 동명왕(고주몽)에 의하여 B.C. 277년에 세워진 후 근 천년동안 동방의 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치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편담하는 우리의 취재는 력포구역 봉산리에 있는 고구려의 시조왕릉인 동명왕릉으로 향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누구나 시조인 동명왕을 숭배하였으며 그의 출생과 성장, 활동업적을 신비화하여 널리 전해내려왔다.

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싶어서이니라. 라고 썼다고 한다.

작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오늘은 궁지스럽게 둘러보는 고구려의 력사이지만 지난 세기 일제의 어용사들이 끼친 후과로 하여 동명왕을 실재한 인물로 보는 학자들조차 평양에 동명왕의 묘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공화국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 김 일

메스링강자인 김일선수는 공화국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이다. 1992년의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그는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자유형메스링 48kg급경기에서 1위를 하여 공화국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로 되었다.

수능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였다. 하지만 김일선수는 높은 정신력으로 집중시간 외측잡기와 선스레에서 내측다리잡고 정면넘어뜨기로 련속 점수를 올려 아르메니아선수와와 경기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설세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강한 수예작품들

수예는 회화적성격을 띠고 있는 독특하고 고상한 공예이다. 공화국의 민수대창작사 수예창작단에서 섬세한 기교로 정교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강한 수예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보약에 못지 않는 자체건강관리

아침에 깨어나서와 잠자기 전에 하는 자체건강관리만 잘하여도 보약을 쓴것 못지 않게 젊음을 유지할수 있다.

냉이도장국

냉이도장국은 냉이와 토장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다. 냉이는 리노작용, 열리작용, 눈을 밝게 하는 작용, 혈압낮춤작용, 피용고작용, 심장혈관확장작용 등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방향과 편경

방향은 악기틀에 쇠 또는 동으로 만든 판대기들을 두단으로 늘어놓아 만든 옛 타악기이다. 우리 선조들이 방향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1114년경이다.

사화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3)

해동성국 발해는 갖가지 그릇들을 잘 구워내는 《자기의 나라》로 알려졌다. 조상들이 구워낸 풀색, 누런색, 밤색의 세가지 색깔이 신비롭게 빛을 뿌리는 삼채도기(세가지 색깔의 도기)도 그렇지만 랍색자기와 자색자기, 청회색자기들은 다 이웃나라들에서도 보물처럼 일러주는것들이었다.

봄비가 오면 왜 더워지는가

봄비는 남쪽의 덥고 누기찬 공기가 북쪽을 향해면서 조성된다. 더운 공기가 북쪽으로 향해갈 때 북방의 공기와 부딪치는데 그 경계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비가 생긴다.

왕공탁에 깃든 이야기 (3)

하먼서도 향기장이 돌아올 때까지는 가마를 뜯고 치는 일을 벌여놓을수 없다고 잘라말했었다. 《미처 아버님! 제발 제 사정을 봐주소이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전 쫓겨가야 하오이다.》 왕공탁의 딱한 사정이 끝내 그의 마음을 움직여졌다.